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2025 봄 59

기획 1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서예의 길을 걷다(예술가 여태명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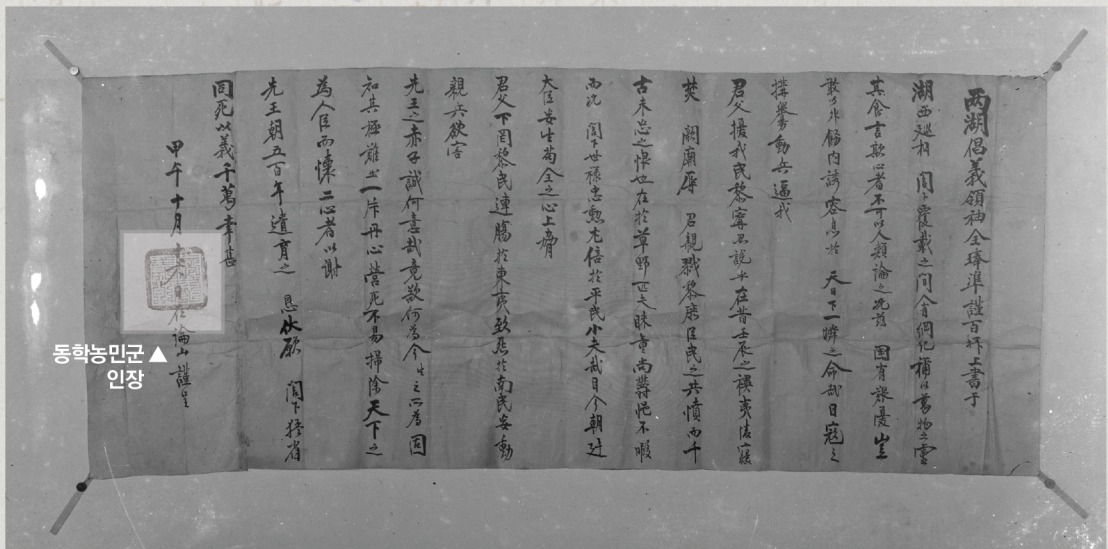
유족 인터뷰 오윤영 참여자의 증손자 신민호

기획 2 동학 유무상자(有無相資) 활동: 꽃피어라, 민주여! 떡국 먹고 함께 가자!

전봉준 상서(全琫準 上書)

전봉준
1894년

16.5cm×12cm(유리원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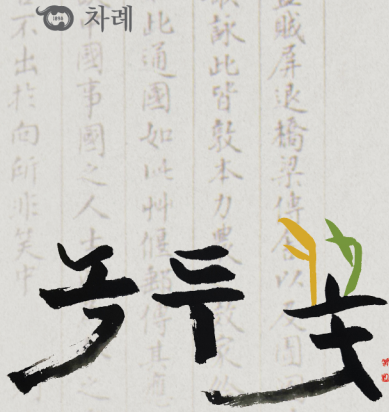


「전봉준 상서」는 전봉준이 양호창의명수(兩湖倡義領首)의 명의로 호서순상(湖西巡相), 즉 충청도 관찰사 박제순(朴齊純)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1894년 10월 16일 충청도 논산에서 작성되었다. 논산대회 전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왜구(倭寇), 즉 일본이 군사를 일으켜 임금을 협박하고 백성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과 결탁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소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같은 내용의 문서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謄書)』의 일부로 수록되어 있다.



▲ 동학농민군 인장

지금까지 동학농민군이 사용한 인장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전봉준 상서」에서 동학농민군의 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장은 전서로 되어 있으며 글자는 제중의소(濟衆義所)라고 새겨져 있다.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의로운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군의 지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제자(題字) 여태명



표지 설명

표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라인 패턴은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과 혁명의 확산을 형상화한 것이며, 점진적으로 퍼지는 디자인을 통해 민중의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02 기념공원의 봄

04 뉴스 초점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브랜드 디자인 개발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기 추모제

09 기획1 예술가 여태명 인터뷰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서예의 길을 걷다

14 재단포커스

2025년 시무식, 동학농민군상 및 추모관 참배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일행 기념공원 방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2025년 동학농민혁명 지역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6차 자문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7차 이사회
2025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18 유족 인터뷰

오윤영 참여자의 증손자 신민호

24 기획2 녹두칼럼

동학 유무상자(有無相資) 활동
꽃피어라, 민주여! 떡국 먹고 함께 가자!

26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2025년 제1차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28 지역포커스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9주년 기념행사
제131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2025년도 제1회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정기총회

31 녹두꽃 편집자문위원회

33 녹두꽃 다시 피다

41 2025년 기념재단 주요 일정

43 언론에 보도된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봄을 노래하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브랜드 디자인 개발

브랜드 컨셉

한반도 첫 인간 존엄의 기록

LOGO

핵심가치

자 주

평 등

기 록

컨셉 키워드

중심

Center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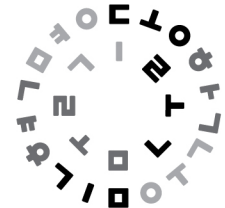
Balance

연결

Connection

민중의 중심에 선
동학 농민평등한 세상을
향한 균형과거와 현재를
있는 기록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023년 5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기념재단에서는 본격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홍보에 나섰다.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예산을 받아 2024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개월 동안 동학농민혁명기록물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 및 정체성을 상징)와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캐릭터 팬층 형성은 물론 시민에게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기념재단에서는 이번 캐릭터 개발을 기반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등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BI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발통문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간소하게 나타냈다. 원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자음과 모음을 방사하여 표기한 모양은 사발통문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사발통문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결의하며 작성한 문서이다. 종이 위에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쓰는 사발을 얹어 놓고 그 바깥쪽을 따라 둥그렇게 이름이 쓰여 있다. 위아래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발통문에는 고부성을 점령하고 군수 조병갑을 죽일 것, 탐관오리들을 처벌할 것, 무기를 확보해 전주성을 점령한 뒤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대표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대표 캐릭터 4종은 최근 트렌드를 따라 무해하고 친근한 이미지 전달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얹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처럼 동동이는 동학농민군의 흰옷과 죽창으로 구현되었다. 어린 나이에 가난으로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항상 씩씩하게 웃으며 위기에 빠진 친구를 구해준다. 동동이라는 이름은 동동이의 부모님이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같을 동(同)’이라는 글자를 써서 지어주신 것이다. 뽕죽이는 평소에는 대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동동이가 위험에 처하면 동동이를 도와주는 죽창으로 변신한다. 떼굴이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닭장인 장태를 모티브로 한다. 평소에는 함께 다니는 병아리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지만 적군이 공격할 때는 몸을 크게 부풀려 떼굴떼굴 구르며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준다. 친구들은 떼굴이의 뒤에 숨어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땀땀이는 작고 단단한 녹두 친구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은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 땀땀이는 녹두장군 전봉준의 화신으로, 항상 동동이를 응원하고 격려해준다.

다양하게 활용되는 캐릭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BI, 캐릭터는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불가)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기 추모제

일시: 2025. 4. 24. 11:0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전봉준 장군 동상 앞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맞이하여 사단법인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회장 전해철)에서는 2025년 4월 24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추모제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 추모제에는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 사상과 호국정신을 재조명하고 범국민화하고자 국회의원, 서울시장,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동학농민혁명 유족 단체, 천안전씨종회원, 시민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봉행 프로그램은 전봉준 장군 행적 소개를 시작으로 추념사와 추모사 그리고 추모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추모공연은 전봉준 장군 행적을 판소리로 작사·작창한 김판술 명인의 판소리 공연에 이어 장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살풀이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이번 추모제를 통하여 숭고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군의 애국 애족과 평등정신을 선양하고자 한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소개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는 2013년 12월 19일 법인으로 등록되어, 2014년 4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산10-3 단소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119주기 추모제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24일 127주기 추모제까지 봉행하였다.

2023년 4월 24일 제128주기 추모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전봉준 장군 동상 앞에서 추모제를 봉행해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행사로 한발 내딛게 되었다. 특히, 2025년 제130주기 추모제까지 11년 동안 추모제를 지속적으로 봉행하고 있어 전봉준 장군의 농민 사랑과 호국 정신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회장 전해철





4월 24일,
함께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역사를 이어갑니다.



전봉준 장군 순국 129주기 추모제 봉행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서예의 길을 걷다

예술과 삶, 그리고 변화의 과정

여
태
명

여태명 선생님은 우리나라 곳곳에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겨 온 예술가이다.

2024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서 뜻깊은 작품을 쓰셨고,
함께한 작가들과 더불어 서예 작품을
기념재단에 기증하였다.

날짜: 2025. 2. 21.(금)

장소: 충청남도 천안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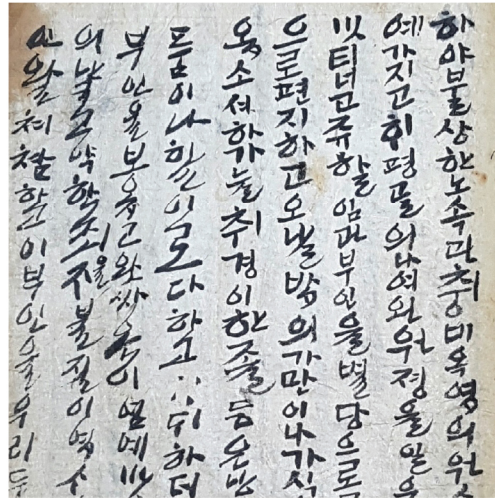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많은 작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뉴스나 신문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어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아직 『녹두꽃』 독자 중에는 선생님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녹두꽃』 독자를 위해 인사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서예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예술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민체를 하다 보니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찍이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들도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평생 민체를 연구하면서 민체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동학농민혁명 관련 작품을 많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전주에서 거주하셨는데, 천안으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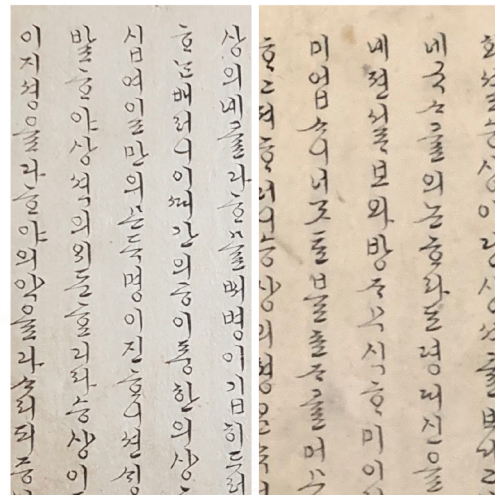
정년퇴직을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생 전주, 익산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더군요.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꼭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세종시, 파주, 서울 등을 놓고 고민하다가 고속버스, 기차와 같은 교통이 발달하고 서울과 전주를 오가기 편한 천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편한 곳이라는 이름처럼 연고는 없지만 이곳이 편하고 좋습니다. 천안에 있으니 각지에 떨어져 지내는 동생들 만나기도 수월합니다.

미혼인 아들과 아내의 전주 집에 있고, 작업실은 천안에 두었습니다. 원래는 천안에서 7~8년 있다가 완주로 내려갈까 했는데, 몸이 아파서 계획을 변경하여 천안 작업실을 정리해야 되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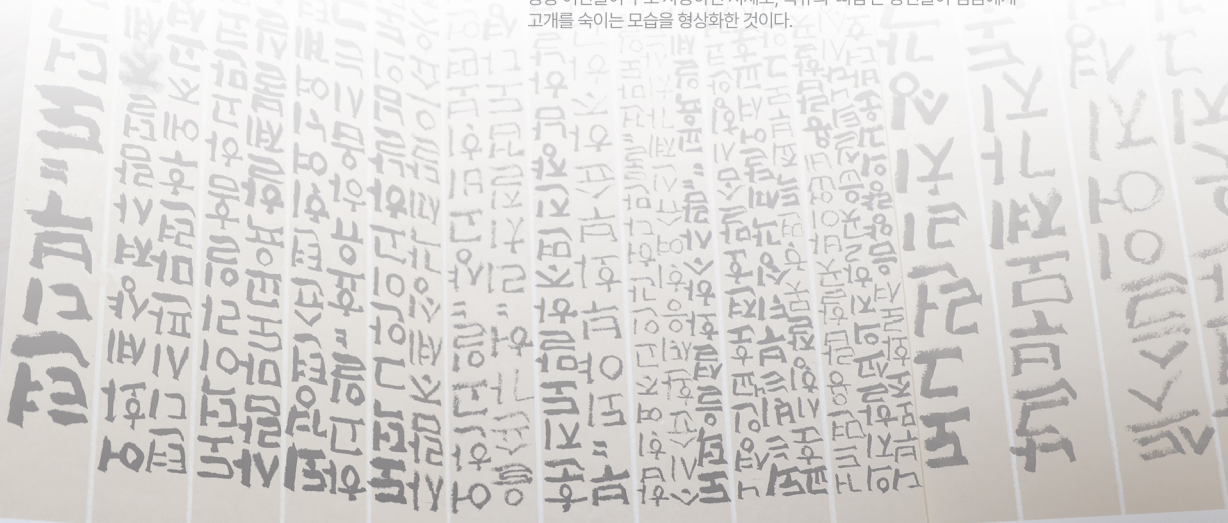
민체

조선시대 민중들이 사용하던 서체로, 글자의 형태가 자유로운 글자를 쓴 사람의 개성이 느껴진다.



궁체

궁중 여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서체로, 특유의 ‘빼침’은 궁인들이 임금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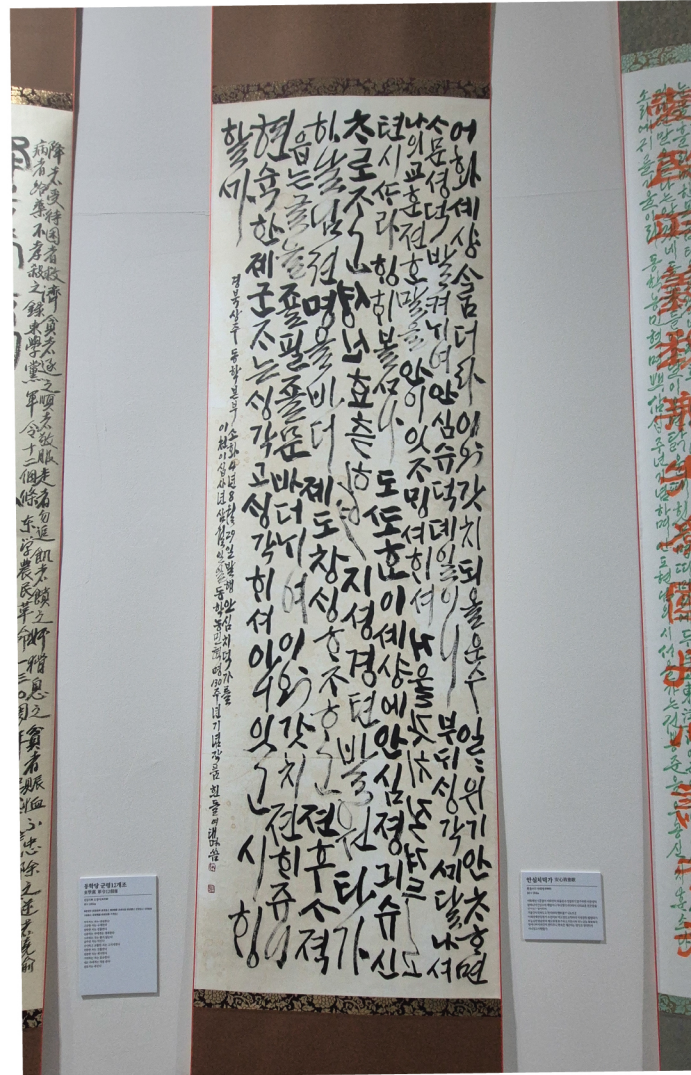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과 선생님의 첫 인연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관련 첫 작품은 무엇이며, 당시 동학농민혁명 작품을 썼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1998년에 제작된, 전주 덕진공원의 순화중 장군 기념비가 아마 첫 작품일 겁니다. 신정일 선생님(『갑오동학농민혁명 답사기』 저자)의 부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정일 선생님은 같은 고향 진안 사람이고, 친구의 형이라서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이입니다.

감사하게도,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24년에 <안심치덕가>라는 작품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작품은 현재 재단 기념관 2층에 특별전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책들을 수집하면서 이 책들을 내 손으로 써서 책으로 엮거나 작품으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기념재단에서 매입하여 전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그런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관련 여러 책을 보다가 『안심치덕가(安心治德歌)』의 한 대목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품이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특별전시에 활용되었고, 전시가 끝난 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시되어 있는 <안심치덕가> 작품



『안심치덕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서예 작품 ‘안심치덕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봉준 장군 동상에 새겨진 ‘녹두장군 전봉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심은 나무의 표지석 글씨 ‘평화와 번영을 심다’, 전주 틀게이트 현판 ‘전주’ 등 여태명 하면 많은 작품이 거론됩니다. 선생님께서 꼽으시는 대표작은 무엇입니까?

땅으로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 남아 있는 것인데, 국가적 행사에 서예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참여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늘로는 대통령 전용기의 ‘대한민국’, ‘KOREA’가 있고, TV에 나오는 길로는 ‘1박2일’, 관청에 있는 것 중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현판이 대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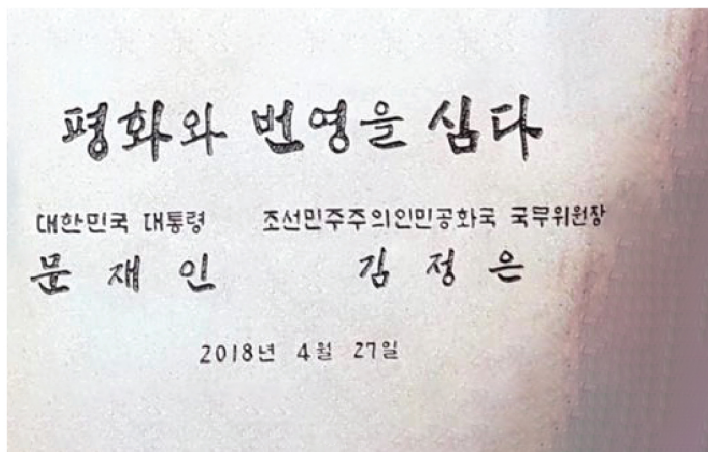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표지석 글씨를 제작할 당시의 상황과 감회를 듣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급히 진행된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북한과 조율해야 되어서 딱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선거철이라서 여론 조사나 하나 보다 하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습니니다. 받았더니, 청와대 아무개라고 하더라구요.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어서 사기꾼 전화인가 싶었는데, 조용히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해주실 수 있냐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했더니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자 이메일을 보낼 테니 지금부터 딱 비밀로 하고 메일을 열어본 연후에 다시 통화를 하자고 합니다. 비밀로 하라고 하니,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싶는데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 확인하려는데 청와대에서 온 건 보안이 걸려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더라구요. 비밀번호를 넣으니까 자세한 설명이 안내되어 있고, 한 두세 가지 시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첫 번째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글자체, 그다음에는 제가 전주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한 전주의 완판본체, 세 번째를 뭘 할까 고민하다 제가 평생 민체를 공부했으니 민체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보내드렸더니 거기서 회의를 했는지 민체를 택해서 민체로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훈민정음으로 쓰고, 이름은 민체로 썼습니다. 개인적 욕심으로는 민체가 되었음 좋겠다 했는데 정말로 민체를 택했더라구요.



대통령 전용기 모형 “대한민국 KOREA” 여태명 글씨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심은 나무 표지석 여태명 글씨

그런데 비밀로 진행되어 기념식 전까지도 정말 제 글씨로 진행되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의뢰하여 다른 사람의 글씨로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딱 제 글씨더라구요. 외국에서도 생방송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친구들,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오고 한국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고는 여태명 글씨 같은데 맞냐, 틀리냐로 막걸리 내기도 했습니다.

‘우아한 가난’이라는 말처럼 예술가의 가난은 신성시되고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제대로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께도 이런 힘든 날이 있었을까요?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술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예술가들이 밥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재료도 사고, 또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작품으로서 판매가 된다든지, 정당하게 사회에서 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술에 대한 인식이 어려워서 생활을 위해 예술을 해야 하는지, 예술을 위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갈림길에서 참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예술을 위한 생활은 예술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은 희생해야 했습니다. 라면을 먹든지 밥을 덜 먹든지, 제가 희생하고 감내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생활을 위한 예술을 하면 예술을 희생시키고 작품 활동을 덜하든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고민 속에서 예술과 생활, 두 가지를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더욱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광대 서예과 교수로 있을 때 서예과 나오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문과 나왔다고 전부 시 쓰고 소설가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서예도 글씨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서·전서와 같은 고문서 번역가, 박물관 학예사, 연구원,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동안 시대와 트렌드를 따라 작품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에 주목하며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서예과가 없어서 전공을 동양화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서예를 오래 해서 서예로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화를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한글도 쓰고, 전각(인장)도 하고, 문인화나 디자인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는 미술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판화, 조각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융합 예술입니다. 제 작품은 저게 서예 작품이야, 그림 작품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본디 서예 작품은 읽고 그 내용을 감상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저의 작품은 보는 서예, 글자를 몰라도 되는 서예입니다. 그래서 획과 점으로 구성된 글자를 풀어헤쳐 놓은 해체 예술 혹은 서예와 전각을 융합하거나 서예와 서양화를 융합하는 융합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예가가 아닌 예술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께 ‘예술’이란 무엇인가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 부단히 변화되는 모습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더군요. 늘 하던 것만 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작가입니다. 생명이 끝난 겁니다. 60대에서 70대로 가면서 변화하고, 70대에서 80대로 나이가 들면서 또 조금씩 달라진다면 살아 있는 작가입니다. 변화를 해결하여 다음 단계로 올라가본 사람만이 변화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발하고 도전하며 계속 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노력하여 변화의 방향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술에는 끝, 완성이 없습니다.**

(대담자 :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한눈에 알아보는 재단포커스

01.02



2025년 시무식, 동학농민군상 및 추모관 참배

2025년 을사년,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및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임직원 일동은 1월 2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시무식은 기념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시설물 '불멸, 바람길'(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과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내 추모관에서 헌화와 묵념 등으로 진행되었다.

01.20

1월 20일에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염영선 도의원, 정종복 도의원,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새해를 맞이하여 기념재단을 방문하였다. 문승우 의장 등은 기념공원 추모관 및 '불멸, 바람길'에서 헌화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배를 마친 후에는 기념재단 세미나실에서 신순철 기념재단 이사장 및 기념재단 임직원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지원과 기념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일행 기념공원 방문



02.13

02.13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2월 13일 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에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올바른 역사와 숭고한 인권 및 평등 정신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울시 학생들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수학여행 방문, 동학농민혁명 온라인 교육 및 방문 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재단이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5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동학농민혁명 역사 교육 및 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과 협약 이후 전북 지역 청소년들의 기념공원 방문 및 교육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90회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02.04

2025년 동학농민혁명 지역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기념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지역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25년 1월 16일 공고를 게시하여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공모에 대한 접수를 받았으며, 총 20개의 지역단체에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2월 4일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의 지역단체에 9천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지역단체는 서울·경기권역 3팀, 경상권역 1팀, 충청권역 5팀, 전라권역 8팀이다.



02.2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6차 자문위원회

2월 20일 기념재단에서 5기 제6차 자문위원회가 열렸다. 회의는 기념재단 5기 제7차 이사회에 상정할 2024년도 결산(안) 검토, 131주년 기념식, 세계기록유산 등재 순회전시, 동학농민혁명 해설사 양성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신순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민(백제예술대 뮤지컬과 겸임교수), 김명성(전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김봉승(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손주갑(동학농민 유족회 대의원), 이광철(녹두꽃시민합창단 단장), 이기전(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정신(장흥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전성진(전 MBC전주문화방송사 사장), 김용달(전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김현승(변호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02.2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기 제7차 이사회

2월 27일 기념재단에서 5기 제7차 이사회가 열렸다. 심의 안건 '2024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기념식,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순회전시,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년 추모기념 행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순철 이사장을 비롯하여 주영채(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심형기(홍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위희환(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선원(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삼성(전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우선희(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대리 참석),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이사가 참석하였다.

02.27



02.26

02.26

2025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

2025년 2월 26일 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제7기 기념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2024년도 기념관 회계결산 보고, 2025년도 기념관 사업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염영선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명(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상원(전북대 사학과 교수), 임혜영(군산대 역사학과 강사), 이지현(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 교수), 최원창(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장), 김흥표(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대리 참석), 박흥규(기념재단 사무처장)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오윤영 참여자의 증손자 신민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오윤영(1850~1918)의 후손, 진외증조부 오윤영 선생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전라남도의회 의원(순천6)으로 활동하고 있다.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 청산 및 연구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및 전남독립운동사 편찬 주장과 같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날짜 2025. 2. 12.(수)

장소 전라남도 순천

참여자 오윤영(1850. 10. 16. ~ 1918. 11. 24.)

유족 신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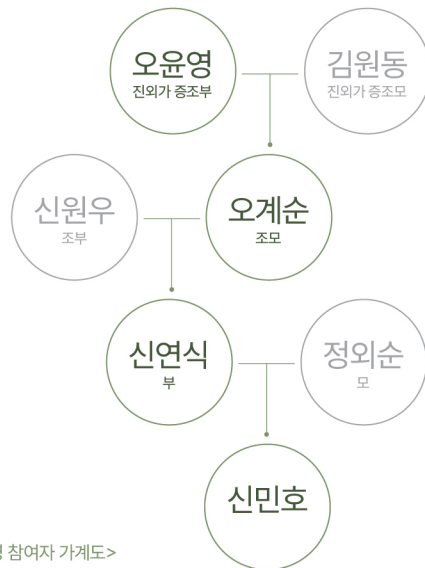


Q 『녹두꽃』 독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오윤영 조부님의 유족 신민호입니다. 저는 전라남도의회 도의원(순천 6)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입시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0년 순천시의회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순천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재선의원으로 활약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전라남도의회원으로 활동하며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역임하고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재선 도의원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고흥이 낳은 위인 월파(月波) 서민호 선생입니다.



<오윤영 참여자 가계도>

선생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민호 의원처럼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불의에 맞섰던 월파 서민호 선생의 빛나는 삶은 제 역사의식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군부독재 타도에 앞장선 학생운동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순사건 조레안 제정, 전남독립운동사 편찬 주장 등 우리 지역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제가 자랑하는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Q 어떻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신민호 유족의 할머니 오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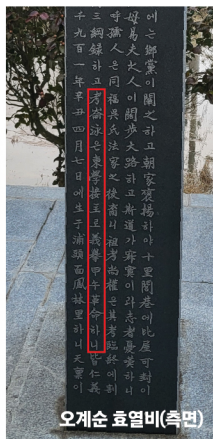
오윤영 접주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오윤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자신감을 잃고 힘들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 집안의 역사와 조상의 자부심을 이야기해주시며 저의 자존감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꺾이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훈련대장이자 접주로서 활약하신 오윤영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윤영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윤영 접주는 진외가 증조부(할머니의 아버지) 어른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고흥에는 포두면 봉림과 도양읍 원동 두 곳에 동학농민군 군사 조련장, 곧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포두면에 있는 봉림 군사 조련장의 훈련대장이 오윤영 접주였습니다. 동학농민군 훈련장이 두 곳이나 있었다는 것은 고흥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관군 진압 기록인 『양호우선봉일기』에 홍양(현 고흥) 동학농민군 진압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흥지역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들의 항쟁이 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계순 효열비(정면)



오계순 효열비(측면)

“고(考) 윤영은 동학 접주로 의거, 갑오혁명하니”

오윤영 접주는 동학의 포교 활동과 더불어 농민군 조직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오윤영 접주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신학구를 통해 식량과 군기 물자 등을 조달하게 하였고, 신춘휴를 통해서서는 기마술과 병법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오윤영 접주는 1894년 12월 체포되어 처형될 처지에 있었으나, 관군 진압군 포군총장 김정태에게 재산을 내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시의 상황은, 김정태가 조부님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죄를 약간 가볍게 하여 주며 마치 선처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부님의 삶을 볼 때,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관군 토벌 지휘관과 거래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 1915년에 발간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따르면, 오윤영 선생님께서서는 본적인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흔히 동학농민혁명은 지배층에게 핍박받은 가난한 농민들이 일으켰다고 알고 있지만 여러 조사를 통해 농민뿐만 아니라 지주층, 향리, 심지어 양반까지도 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던 오윤영 선생님께서 혁명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해 들은 바가 있으실까요?

오윤영 접주의 부친 오상권은 소문난 효자였다고 합니다. 향교에서 오상권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효자오공상권지비(孝子吳公尙權之碑)’라는 비석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오상권은 고향 앞 들판인 ‘버든이들’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중농 지주였다고 합니다.



효자오공상권지비(孝子吳公尙權之碑)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류 중 하나인데요, 양반, 지주들은 동학에 부정적이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양반 지주들 가운데 상당수 인사들은 동학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무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고막원 전투에서 패배하여 처형된 김응문도 유학자이자 지주였습니다. 함평에서는 양반,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윤영 조부 또한 반봉건, 반외세 사상이 강한 동학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였던 오윤영 조부님은, 일본군이 우리 주권을 빼앗으려 하자 전 재산을 내놓고, 무장 투쟁에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Q 오윤영 선생님에 대하여 들은 일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오윤영 접주는 자신 소유 토지에 훈련장을 마련하고, 마을 앞에 술을 걸어 농민군의 식사를 도맡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봉림 방앗간이 있는 자리를 ‘막배미’라고 불렀는데, ‘막’은 끝이 없다는 뜻이고, ‘배미’는 논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오윤영 접주가 소유한 끝없는 논, 넓은 들판인 막배미에 동학농민군들이 술을 걸어 놓고 식사를 준비했다 하여 나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받은 피해가 있었나요?

마을에 밀정이 있어 오윤영 조부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이 고발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피해가 커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할머니께서도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는 조부님의 뜻을 기리며, 조부님을 닮은 저를 제사에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조부님의 강인한 신념과 희생, 그리고 가족을 위한 헌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Q 신민호 유족님은 현재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의정 활동 중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 등이 눈에 띄니다. 아무래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의원님 인생의 이정표가 된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저는 누구보다 불의에 항거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는 투철한 역사의식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역사의식 형성의 토대가 된 것은 동학농민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오윤영 조부님의 삶이었습니다.** 이미 우금치 전투에서, 그리고 전남 곳곳에서 일본 정규군의 살육 작전에 맞섰던 많은 농민군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 재산을 내어 동학농민군을 훈련하는 훈련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쉽게 따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숙연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조모님과 부친에게서 들은 오윤영 접주의 빛나는 삶은, 저의 역사의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의식이 형성되면서 어려서 막연히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던 월파 서민호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공부하면서, 올바른 역사의식은 정체성 형성의 토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일과 항일이 섞이고,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반공’으로 항일지사를 공격하고, ‘여순사건’ 희생자들이 ‘빨갱이’로 무참히 희생되었던 현대사의 비극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역 정체성 확립의 토대를 반드시 구축하여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Q 최근 전남 항일운동의 시작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과 농민군 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흥 석대들에 무명 열사 묘역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전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다양한 활동이 주목되는데요.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략에 맞선 구국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규군과 전투를 치른 순천 영호도회소의 빛나는 항쟁, 장흥 석대들에서 장엄한 옥쇄를 선택한 동학농민군들의 함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학농민군들은 ‘동학의병’을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곧 의병 전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편찬 중인 전남독립운동사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항쟁을 담고, 특히 2025년 말 개관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에도 동학농민항쟁의 역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곧 정책으로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흥 석대들의 무명 열사 묘역 등을 성역화하고, 전남 곳곳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정리하고, 전투지를 발굴하여 기념 공간으로 만드는 일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제 학술 세미나도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신민호 유족님의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 신민호 유족님의 가치관이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도 크고 작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사회는 향후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살률 1위’, ‘명품 소비율 1위’ 등의 참담한 기록은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한 사회라는 징표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이용한 것이 최근 현직 대통령이 취한 친위쿠데타였습니다. 법원이 공격받은 위험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폭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합니다. 공화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기에 저는 역사의 소중함을 간절히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당당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전남독립운동사 편찬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 마중물은, 2020년 제가 증액 편성한 3·1운동 판결문 번역 사업이었습니다. 이 때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자 대대적으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1,023명의 서훈 신청이라는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독립운동사 편찬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전남독립운동사’ 편찬이라는 우리 지역 독립운동사의 성전(聖典) 편찬이 시작되는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그분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정치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으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재단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높이 평가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면, 체계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과 '농민'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혁명의 성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단은, 양 측면을 동시에 살피면서 '동학농민혁명'을 한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민호 유족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식지 유족 인터뷰를 마칠 것입니다.

(대답자: 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통지서 전달식에서
통지서를 받은 오윤영 참여자 유족 일행

꽃피어라, 민주여! 떡국 먹고 함께 가자!

동학 유무상자(有無相資) 활동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이하 전동연)는 2024년 1월 12일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목적으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50여 단체가 연대하여 창립되었다.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선양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전략에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 전동연은 전국에서 활동하였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2024년 6월 1박 2일간 현충 시설인 천도교의 봉황각(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보국안민봉황각취회를 열어 의암(義菴) 손병희를 참배하였다. 이어 서울 여운형 묘소(서울 강북구 소재),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서울 종로구 소재), 해월(海月) 최시형 순교 터(서울시 종로구 소재), 3.1운동 탑골공원(서울 종로구 소재) 견학을 진행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재현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이처럼 '전동연'은 전국이 연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 10시경,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지켜보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과 각 지역 내에서 맹렬한 저항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전동연'은 2025년 1월 1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동학의 사상적 토대가 된 유무상자 활동을 실천하였다. 유무상자(有無相資)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동학의 정신을 뜻한다. 우리는 떡국 봉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아보고 1월 8일 처음으로 대통령 관저 앞 시위현장에 가보았다. 방송이나 유튜브로만 보았던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강추위 속에서 밤샘 시위를 하고 있는 한남동 시위팀은 아무런 먹거리 없이 온몸으로 역사의 현장을 사수하고 있었다. 강한 추위 탓인지 시위 현장은 생각보다도 훨씬 열악하였다. 특히, 얼은 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생수와 간식거리조차 놓을 공간이 없는 부족한 현장에 마음이 너무도 아팠고 젊은 청년들의 눈부신 정의로움에 절로 책임을 통감하였다.

'전동연'은 시위단에 동학의 유무상자 활동을 설명하고 장소와 시간을 시위단에게 말씀드렸다. 힘써 시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500그릇의 떡국을 준비하여 오기로 결심하였다. 감사하게도 전국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었다. 강북구의 한 시장에서 8시간 넘게 장을 보았다. 1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천도교 3.1운동의 성지인 봉황각에서 떡국 육수를 5시간 넘게 밤새도록 끓였다. 목포의 굴과 김치, 신안의 시금치나물, 장흥의 소고기, 기부 받은 쌀 등 많은 분들의 유무상자 활동이 분주히 시작되었다.

2025년 1월 11일 새벽 우리는 차량 두 대에 떡국과 가래떡 40kg도 준비하여 눈발 속을 걸어 오전 7시경 도착하였다. 부산, 영해, 태안, 순천, 서울 등지에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전동연' 사람들이 모였다.

시위팀들은 서로 감사함을 표했고 동지애를 나누며 동학의 정신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떡국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드렸다. 시민들은 긴 줄의 기다림도 동학농민가 등 다양한 동학 노래를 들으며 버티었다. 어떤 분은 1980년 5·18 민주화 항쟁의 주먹밥이 생각나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사차·커피·휴대폰 충전

동학 유무상자 활동
꽃피어라
민주여
떡국 먹고
함께 가자

동학 유무상자 활동
꽃피어라
민주여
떡국 먹고
함께 가자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떡국봉사단





국난 극복을 외치는 시간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잠시 잊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민주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한남동 시위 현장 분위기는 한바탕 아름다운 희망의 장이 되었다. 단체를 소개하는 짧은 시간이 다가왔다. 보국안민과 의를 깃발로 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2023년 5월 세계기록유산인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음을 알리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보다 앞선 시기에 존재하였던 동학민주주의를 알렸다. 사람을 한울처럼 공경하는 사인여천(事人如天),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나누는 유무상자(有無相資), 만물을 공경하는 대인접물(待人接物) 등 우리가 지향할 동학 세상, 동학민주주의를 말하였다. 그리고 전남 장흥에 무명동학농민혁명군의 묘지 3천 기가 있으나 아직 성역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렸다.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 제주 4·3 항쟁도 성역화되었는데 진정 구한말 나라를 구하려는 동학농민군의 묘지는 너무도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외침이었다.

시민들은 동학농민혁명 유무상자 봉사단을 접하고 서로 감동하였다. 12시간 동학 에너지는 흥겹고 활기찬 모습으로 국난 극복을 넘어가고 있었다. 준비한 떡국 약 700그릇은 모두 소진되었다. 떡국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로 가래떡도 나누어 드렸다. 김치며 시금치며 다 얼었으나 우리의 동학 유무상자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시민들의 헌신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지 동학민주주의, 동학세상을 실천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글 :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사무국장 김명재)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2월 11일~2월 12일 기념재단에서 저자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의 저서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2024)에 대한 비평회가 열렸다. 1일 차에는 저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2일 차에는 특별전 관람과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상대로 벌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황토현전적 일원에서 답사가 이루어졌다.

지수걸 교수는 '동학 어셈블리(assembl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다양한 민중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간의 차이를 넘어 자율적으로 각지의 접 단위에서 모이고 모아, 점거하고 담판하는 정치적 힘이라고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와 협동이라는 '동학 어셈블리'가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에 큰 변혁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토론으로는 도면희(대전대 교수), 유바다(고려대 교수), 김양식(청주대 교수), 박정민(전북대 교수), 왕현종(연세대 교수),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이 참여하였다. 이날 저작비평회에서는 유례없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김양식 교수는 '동학 어셈블리'에 대하여 어셈블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1894년 일련의 사건이 왜곡되거나 단순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고부 봉기는 단순히 민중이 관아를 점령했다는 정도로만 볼 게 아니었다. 당시 관아는 고을 왕권의 상징에 가까우므로, 고부 봉기에서 민중이 관아를 점령했다는 것은 조선사회 봉건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가까웠다.

아울러 박정민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교수들이 지수걸 교수가 제시한 '동학 어셈블리'라는 개념은 당시에도 사용되었고 오늘날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도회(都會)'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수걸 교수의 연구는 '동학 어셈블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저작비평회에서 다수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2월 11일 기념재단 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2025년 연구소 추진 사업에 대한 것으로, 재단 정기 학술대회, 세계기록유산 순회전시, 연구소의 외부 학술·연구 용역 수행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신영우 위원장(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을 비롯하여 배항섭(성균관대 교수), 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김용달(전 독립운동사연구소장), 왕현종(연세대 교수), 김양식(청주대 교수), 이해준(공주대 명예교수), 박정민(전북대 교수), 유바다(고려대 교수), 최두현(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위원이 참석하였다.



2025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2025년 2월 27일 2025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열렸다. 회의는 2024년도 박물관 사업추진 결과 및 2025년도 박물관 사업 추진 계획 검토와 자문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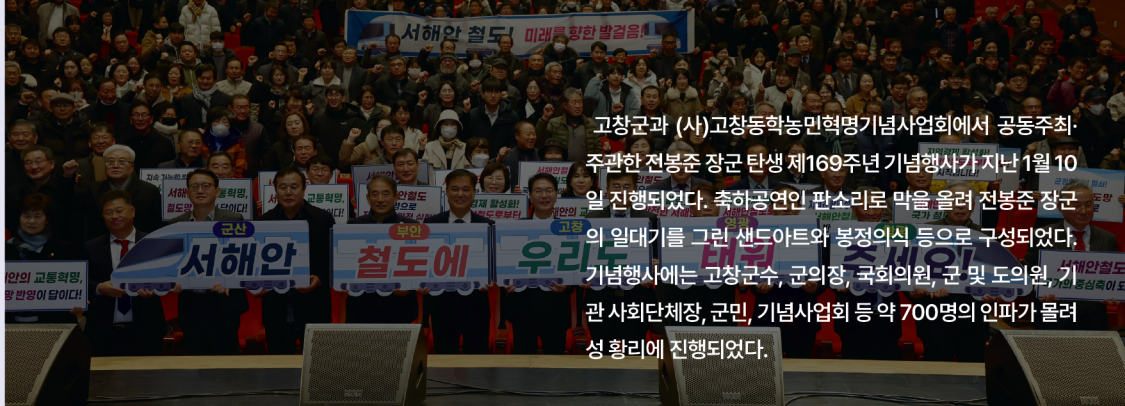
2024년 박물관의 중점 사업은 특별전시이다.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및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성공리에 개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도 중점 사업은 국립박물관 등록으로, 국립박물관 등록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내적 합의와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에는 천진기(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위원장, 박재상(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학예연구관), 김양식(청주대 교수), 오옥진(국립세한금간척박물관 학예실장), 염영선(전북특별자치도 의원), 김선경(전북특별자치도 소통기획과장) 위원이 참석하였다.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9주년 기념행사



고창군과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공동주최·주관한 전봉준 장군 탄생 제169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월 10일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인 판소리로 막을 올려 전봉준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샌드아트와 봉정의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념행사에는 고창군수, 국회의원, 군 및 도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군민, 기념사업회 등 약 700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오른쪽부터 윤준병 국회의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심덕섭 고창군수, 김만기·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의원

제131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

2025년 2월 15일 정읍시 이평면 일원에서 제131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가 펼쳐졌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총 3차례의 재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고부봉기 진군 행렬을 재현한 것으로, 장구를 치고 깃을 높이 든 시민들의 백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두 번째는 정읍시장, 국회의원 등이 대표로 사발통문 작성을 재현하였으며, 고부관이 터인 고부초등학교(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소재)에서 진행된 고부관이 점령 재현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2월 15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억압과 착취에 고통받던 고부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고부관을 점령한 역사적 사건이다.





2025년도 제1회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정기총회



2월 15일~2월 16일 양일간 2025년도 제1회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대표 고재국, 전국 동학농민혁명 관련 50개 단체)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15일 이희청((사)동학농민혁명고부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초청으로 제131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에 참여한 후, 기념재단 기념사업부 한민욱 부장의 안내와 해설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비롯한 백산봉기지, 무명농민군위령탑, 사발통문작성지 등 정읍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유적지 답사를 마친 후 기념재단 교육관 강당에서 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이병규 부장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15일 저녁에는 정기총회가 이루어졌다. 2024년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킨 후, 윤석열 탄핵에 대한 성명서를 결의하였다. 성명서에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야기하였으므로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정신으로 다함께 연대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와 평화를 수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다음날 16일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는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녹두꽃』의 새로운 도약



1. 녹두꽃 창간호(2010)
2. 녹두꽃 45호(2021)
3. 녹두꽃 57호(2024)

2025년 2월 17일 기념재단은 소식지 『녹두꽃』의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녹두꽃』은 2010년 가을호(제1호) 발행을 시작으로 2025년 봄호(제59호)까지 계간으로 발간되어 왔다. 기념재단 및 지역 기념사업단체, 유족회의 소식을 알리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녹두꽃』은 재단의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자산이다.

기념재단은 『녹두꽃』을 체계적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했다. 편집자문위원회 제1기는 최명주 편집자문위원장을 필두로, 최기우, 김희경의 외부 위원과 최두현, 신병구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최명주 편집자문위원장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청 등에서 편집·교정·교열 업무를 중점으로 맡아왔다. 김희경 위원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현재는 작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최기우 위원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문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수료하였으며, 최명희문화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극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대표작으로는 『상봉』, 『춘향꽃이 피었습니다』, 『은행나무꽃』 등이 있다. 내부 위원인 최두현 위원과 신병구 위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편집자문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독자와 더욱 가까운 『녹두꽃』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녹두꽃 변천사





최명주
『녹두꽃』 편집자문위원장

다시, 동학농민혁명의 이름으로!

전봉준투쟁단의 행진과 『녹두꽃』의 새로운 시작

편집자문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녹두꽃』 편집자문위원장 최명주입니다.
역사는 기록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녹두꽃』은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5년 봄호부터 『녹두꽃』은 새롭게 구성된 편집자문위원회와 함께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기획기사, 유족 인터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잇는 지역 현장 활동, 독자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배포 방식에서 더 나아가 보다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녹두꽃』을 비치하여 더 많은 도민에게 동학의 정신을 전할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1980년 정읍동학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학은 이 나라 민주적 근대화의 효시"라고 말했습니다. 억압과 수탈 속에서도 민중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발걸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녹두꽃』은 이러한 정신을 기록하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한 '전봉준투쟁단'은 130년의 시간을 넘어 하나의 꿈을 이루었습

니다. 전남에서 출발한 이들은 서울 인근 남태령에서 긴 밤을 보내고, 29시간의 대치 끝에 마침내 서울 한남동에 도착했습니다. 130년 전, 한성을 향해 나아가던 전봉준 장군의 뜻이 이 순간에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만들어낸 희망의 흐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절박함이 모여 계엄과 헌법 위반을 막아냈습니다. 그날, 긴박한 순간에 내려진 결정들은 과거가 남긴 가르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외칩니다. "지난 역사가 오늘을 구했다." 많은 시민이 가슴 깊이 새겨온 정의에 대한 믿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현실로 피어났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녹두꽃』이 역사적 사료로 남기를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외쳤던 평등과 인간애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녹두꽃』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바람 살랑이는

녹두장군 캠핑장



운영기간 목요일~일요일(연중)

운영시간 당일 14:00~익일 11:00

운영시설 오토캠핑 22면, 자가카라반 8면
일반캠핑 21면, 취사장, 샤워실

예약기간 전월 20일 13시~전월 31일 20시

신청방법 Homepage. www.1894.or.kr
Tel. 063-530-9422

이용대상 누구나



차와 음료로 여유를 즐기며, 기념공원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카페테리아 1894



운영시간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운영문의

063 - 530 - 9407

대표메뉴

녹두라떼, 민초라떼, 파랑새에이드

봄 시즌메뉴 출시

spring season



딸기라떼

상큼한 딸기와
부드러운 라떼의 완벽한 만남!
Strawberry Latte



Cold Brew 콜드브루

산미와 단맛의 조화로운 맛!



동학농민혁명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

2025년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어린이·청소년·성인·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조성된 박물관, 기념관, 기념조형물, 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교육·체험·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념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체험	역사탐방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기념공원	상시

○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상설	1894! 가보세 갑오세	모든 대상	박물관 및 기념공원	상시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5월
	'한가위 한마당' 특별 프로그램			10월
문화가 있는 날		월별 상이	박물관 및 기념공원	3월~12월
온라인	(국내) 1894년, 동학농민군을 만나다	초등 4~6학년	온라인(ZOOM)	3월~11월
	(국외)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나는 동학농민군	재외동포		

○ 기념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정
관내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라	모든 대상	기념관	2월~12월
관외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초·중·고등학생	신청학교 교실	3월~12월
답사	1894 시간여행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생	기념관, 도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5월~11월
	녹두꾸러기 탐험대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생(5학년)		4월~5월

○ 해설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	일정
기념공원	30만m² 부지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형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며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 (개인, 단체)	상시
박물관	동학농민혁명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세계사적 의미를 유물, 영상, 패널 등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기획전시, 상설전시, 어린이 전시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념공원



1. 22. 대전한밭교육박물관



2. 6. 정읍 군부대(35사단 105여단)



2. 19. 정읍 한살림



2. 19. 홍범도기념사업회



3. 13. 보영유치원



2. 27. 정읍군부대



12.07. 고창청소년문화재지킴이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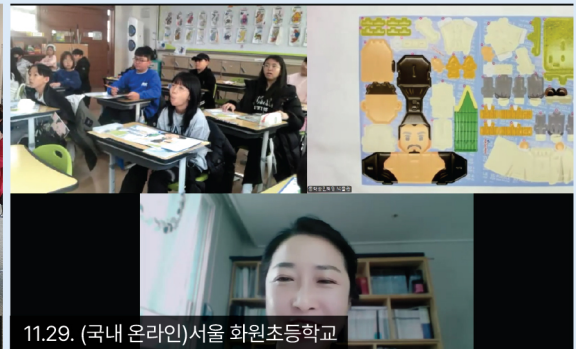
12.21.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12.27. 사회적협동조합보담



11.18. (국외 온라인)미국 한글학교



11.29. (국내 온라인)서울 화원초등학교



01.15. 한밭교육박물관



01.22. 한밭교육박물관



02.12. 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인턴



02.06. 35사단 105여단



02.12. 저작비평회 참여 연구자

기념관



2025. 2. 13.
군산대
국제교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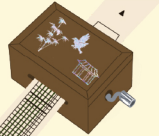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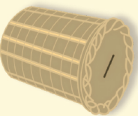
2025. 2. 13.
35사단
206대대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 2025년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연간 계획

2월 새야새야, 반짝반짝 멜로디  자개로 꾸민 오르골 만들기 • '파랑새야' 민요 속 동학농민혁명 신청일: 02월 13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3월 01일(토) 오후 2시	3월 혁명의 기록, 우리의 기억  <오늘 하루> 기록키트 완성하기 •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신청일: 03월 13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3월 29일(토) 오후 2시	4월 녹두꽃 카네이션이 피었습니다  카네이션&녹두꽃 모루꽃다발 만들기 • 동학농민군이 직접 쓴 편지 신청일: 04월 17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5월 03일(토) 오후 2시	5월 내가 그린 혁명 그림  아와 스케치-동학 캐릭터 그리기 • 그림 작품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신청일: 05월 15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5월 31일(토) 오후 2시
6월 동학농민군의 비밀무기, 장태  라탄 공예-장태 저금통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무기와 활동흔전투 신청일: 06월 12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6월 28일(토) 오후 2시	7월 꿈 아로새기고 꼭  전각 수제도장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인장이 찍힌 기록물 신청일: 07월 17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8월 02일(토) 오후 2시	8월 달랑달랑 녹두꽃 도어벨  양말락 녹두꽃 도어벨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 신청일: 08월 14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8월 30일(토) 오후 2시	9월 내 마음의 풍등 소원을 말해봐!  한지 소원등 만들기 • 동학농민군의 소원, 폐경개혁안 신청일: 09월 11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09월 27일(토) 오후 2시
10월 평등의 땅, 평온의 요가  뮤지엄 요가 워크숍 • 황토현 전직지 현장체험학습 신청일: 10월 16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11월 01일(토) 오후 2시	11월 가자 집강소! 과자 집강소!  과자집 만들기 • 민·관합치기구 집강소 신청일: 11월 13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11월 29일(토) 오후 2시	12월 메리 동학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테라리움(정원) 만들기 • 동학과 서학의 만남 신청일: 11월 27일(목) 오전 11시 체험일: 12월 13일(토) 오후 2시	신청바로가기  매월 신청일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은 접수



○ 문화가 있는 날 소개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정한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그 주간에는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 전국의 여러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혜택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혁명박물관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기획·운영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이론수업 및 맞춤형 교구재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과 특별한 체험활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박물관에 방문하여 전시관람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세요.

2월

문화가 있는 날

새야새야, 반짝반짝 멜로디

- 일시: 2025. 3. 1.(토) 14:00~16:00
- 대상: 초등학생~성인 36명
- 내용: <파랑새야> 민요를 배우고, 오르골을 만들어 연주해 보아요!



알찬 시간이었어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파랑새야의
깊은 의미를 알고
오르골로 직접
연주해보니
마음이 아려온다.

동학농민혁명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후기



2월 문화가 있는 날

가족과 함께하니
즐거웠고, 이런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교구재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유익했어요!

2025년 문화가 있는 날에
매월 참여한다면
동학농민혁명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다.



2025. 3. 1.(토)



1월 January

재단 주요일정

- 1.02. 2025년 신년 참배 및 시무식
- 1.17.~31. 지역단체 기념사업 지원 공모
- 1.20. 전북자치도 도의회의장 추모관 참배

관련단체 주요행사

- 1.10.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봉준장군 탄생 169주년 기념행사

2월 February

재단 주요일정

- 2.11.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 2.11. 연구소 운영위원회
- 2.13. 서울시교육청 MOU
- 2.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반기업무보고
- 2.20. 5기 제6차 자문위원회
- 2.26. 기념관 운영위원회
- 2.27.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2.27. 5기 제7차 이사회

관련단체 주요행사

- 2.15. ((사)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고부농민봉기기념제
- 2.15.~16.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 정기총회

3월 March

재단 주요일정

- 3.01. 녹두장군 캠핑장 개장
- 3.01. <문화가 있는 날> 2월 프로그램 운영
- 3.2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
- 3.29. <문화가 있는 날> 3월 프로그램 운영
- 3.31. 녹두꽃 집강소(동학농민혁명 전문 해설사양성 교육과정) 개강

4월 April

재단 주요일정

- **4.01.** 『녹두꽃』 59호 발간
- **4.10.**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 **4월중** 유물평가위원회
- **4월중** 녹두꽃 집강소 수료식

관련단체 주요행사

- **4.24.**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전봉준 장군 순국 130주기 추모제 봉행
- **4.25.**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131주년 무장기포기념제

5월 May

재단 주요일정

- **5.03.** <문화가있는 날> 4월 프로그램 운영
- **5.11.**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 **5.11.** 기념관 1차 특별전시 개막
- **5.1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
- **5.31.**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4호 발간
- **5.31.** <문화가있는 날> 5월 프로그램 운영

6월 June

재단 주요일정

- **6.25.**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 **6.26.~27.** 동학농민혁명 신진연구자 워크숍
- **6.28.** <문화가 있는 날> 6월 프로그램 운영



숫자	보도일	언론사	기사제목
01	2024.12.02.	연합뉴스	동학의 얼을 만난다...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서 6일부터 기획전
02	2024.12.03.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3호 '동학농민혁명 연구' 학술지 발간
03	2024.12.05.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7)]찰이전존안과 계초존안
04	2024.12.05.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신자료, '이풍암공신행록' 최초 발굴 ... 풍암 이병춘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내용
05	2024.12.12.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8)]유회성책(儒會成冊) - 마을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성분조사서
06	2024.12.12.	한겨레	연극 '민초: 햇불을 들어브라' 17일 개막
07	2024.12.18.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9)]<금번집략>과 <금영래찰> -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08	2024.12.19.	news1	부안군, '행안 동학농민혁명 도소서'...전북자치도 기념물 지정
09	2025.01.08.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0)]염기(廉記)
10	2025.01.15.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1)]<이복영일기(李復榮日記)>, <남유수록(南遊隨錄)>과 이용규(李容珪)의 <약사(若史)>
11	2025.01.20.	news1	문승우 전북도의회장 일행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방문
12	2025.02.07.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2)]경상도 상주와 김산소모영의 동학농민군 진압 자료인 <소모사실>
13	2025.02.11.	연합뉴스	'새로운 세상 꿈꾼 동학농민혁명 효시' 정읍 고부봉기 15일 재현
14	2025.02.12.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3)] 1894년 이후 중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배안> <중범공초>에 실린 관료층과 민중에 대한 차별
15	2025.02.13.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평화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6	2025.02.16.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25년 유물 공개 구입 추진
17	2025.02.21.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4)]<남정일기(南征日記)>, <갑오실기(甲午實記)>
18	2025.02.26.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5)] 우금치 전투 이후 지방통제의 실상을 보여준 북하면보
19	2025.03.01.	news1	정읍동학마라톤대회, 3월9일 개최...폴코스 등 4개 부문
20	2025.03.05.	전북일보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36)]<시문기>와 <기문록>- 충청지역 유생이 바라본 동학농민혁명
21	2025.03.07.	KBS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최초 승전지 '황룡전적' 정비

손글씨 인증샷 올리고 치킨 먹자!

손글씨 이벤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하는 손글씨 이벤트!
직접 쓴 손글씨를 찍어서 네이버폼에 올려주시면,
예쁜 글씨를 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각 10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2025. 04. 25. (금)~
2025. 05. 23. (금)



당첨자 선물

BBQ치킨 기프트콘 10명
(황금올리브치킨+감자튀김+콜라1.25L)

응모방법

01



직접 쓴 손글씨 촬영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문구 손글씨 사진을
찍어주세요.

02



QR코드 찍기

핸드폰 카메라로
왼쪽 QR코드를
찍어주세요.

03



신청서 작성

QR코드를 찍어서
열린 네이버폼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04



사진첨부 필수!

손글씨 사진까지
첨부해야
신청 완료됩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 1인 1회 응모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발송 후 모두 폐기됩니다.
- * 이벤트에 당첨된 손글씨는 여름호 소식지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식지(58호) 독자 의견 및 퀴즈 정답자

58호 퀴즈

- 이번 호 『녹두꽃』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앞으로 『녹두꽃』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중 국가등록문화재(국가사적)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정읍 황토현 전적(井邑 黃土峴 戰蹟)
② 장성 황룡 전적(長城 黃龍 戰蹟)
③ 공주 우금치 전적(公州 牛禁峙 戰蹟)
④ 김제 구미란 전적(金堤 龜尾卵 戰蹟)

퀴즈 정답 ④ 김제 구미란 전적(金堤 龜尾卵 戰蹟)
정답자 4명(3936년, 9282년, 3925년, 7321년)

의견 및 퀴즈 정답

(장읍시 3936년)

- 기획 코너에 최기우 극작가의 단편 무대극으로 성장하는 민중의 역사 <동학농민혁명 소재 무대극> 최기우 극작가의 억눌린 시대를 살아온 선인들의 넋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혁명의 뜻과 의지를 되새기는 작품들이 가슴깊이 새겨지더라고요.
-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동학농민혁명기념장소의 특별한 사진촬영을 자랑하는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대구시 9282년)

- 녹두장군 전봉준 고향 고향 땅에 우뚝서다
이유: 역사적인 사실에 따른 동상건립내용이 좋았습니다
- 영남 동학농민혁명전쟁 참여자 한문출의 증손자 한명수 유족인터뷰 기사

(보령시 39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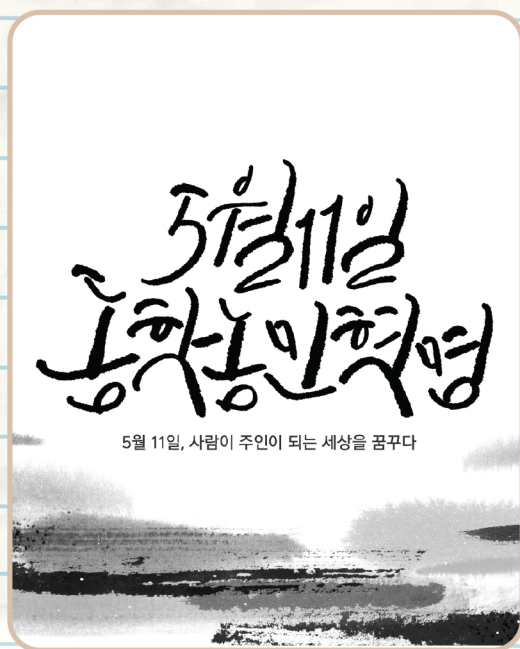
- 의의 깃발 아래, 14페이지 후손들의 역사인식에 조형물을 통한 각성과 학습에 접근성이 친밀할 듯
- 세계혁명예술품 국제포럼, 6페이지 특별법 제정30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혁명임을 공유했듯이 국제포럼 강연문 전문 기재 요청

(경기도 광주시 7321년)

- 증손자 주영채님 인터뷰. 후대의 삶을 엿볼수 있어서.
- 젊은 청년들과 관련된 것. 의식조사 같은

작품을 모집합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본인이 직접 작성) 기사, 연구, 경험, 감동 글
또는 그림, 만화, 음악 등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형식

자유,
A4 용지에 작성 (원고)

온라인 제출

hji234@1894.or.kr

접수기간

상시 접수

선정된 작품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원고로 채택되며,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처

063-530-9413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신청안내



1. 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한 자
- 동학농민혁명 당시 물자를 제공한 자(정보 포함) 및 노동력 제공자
- 기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 외증손, 외고손 포함)



2. 서류 및 제출방법

가. 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참여자와 신청인의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유족신청 바로가기



3.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063-530-9434 ~ 5)

○ 위원회 홈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unesco

Inscribed on the
International Register
Memory of the World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웹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통 권 59호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 화** 063 530 9413 **이메일** 1894@1894.or.kr **제 작** (주) 고려디자인
발행일 2025년 4월 1일 **팩 스** 063 538 2893 **홈페이지** www.1894.or.kr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소식지 『녹두꽃』 우편 구독 안내 문의 **063-530-9413**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2025.5.11.(일) 11:00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정읍시)